

# 자산 72조 ‘신한라이프’ 내달 출범... 생보 ‘빅4 시대’ 개막

당기순이익 3961억... 업계 2위 다채널 보험 비즈니스 모델 구현 채널 특성 맞는 ‘4종 신상품’ 선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하는 일류(一流) 회사를 만들겠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해 탄생하는 신한라이프 기자간담회에서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는 “향후 다른 회사들보다 한 발 앞선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존 보험업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류 보험사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이날 새로운 비전 ‘뉴라이프, 라이프(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도 소개했다.

신한라이프의 2020년 말 양사 실적 단순 합산 기준 총자산은 약 71조5000억원으로 업계 4위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3961억원으로 업계 2위, 수입보험료는 약 7조9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가 15일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주요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신한생명

준이다. 지급여력비율(RBC)도 314.1%에 이른다.

성 사장은 “튼튼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자산을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통합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널

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다. 2040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오렌지라이프 FC채널과 4060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신한생명 FC채널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다.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통신판매(TM) 채널, 전화와 대면 영업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채널,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채널까

지 갖추게 됐다.

신한라이프는 출범과 동시에 채널의 특성에 맞는 총 4종의 신상품도 선보인다.

성 사장은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고객자산가 그룹을 담당하는 웰스매니저(WM) 조직과 상속증여연구소도 운영할 예정이며, GA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영철 고객전략그룹장은 “중신보험의 경우 아꼈을 때만 보장을 해주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던 경우가 있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중신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건강보험도 수면관련된 부분을 결합해 생활 밀접한 건강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라이프는 ▲고객 손안의 휴대폰

에서 24시간 동안 모든 보험서비스 제공 ▲회사 내 보험업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 적용 등 두 가지 디지털 전략 방향도 새롭게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신한라이프는 디지털 조직을 1그룹 4개 부서로 확대 편성했다.

성 사장은 새로운 영역 개발로 신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금융플러스는 대형 GA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했다. 베트남 해외법인인 현재, 현지 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한 후 내년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성대규 사장은 “신한라이프는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진심을 품은 보험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에 가장 앞장서는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누구나 수수료 면제... 신한 ‘급여클럽’ 새단장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66만명 가입 고객 편의성 중심... 이용 화면 개편

신한은행은 연금, 용돈, 생활비 등 소득이 있는 누구에게나 수수료 면제와 같은 급여고객 혜택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클럽’을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시 2년만에 66만명이 가입한 급여클럽은 연금,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소득을 급여로 인정한다. 급여클럽을 가입하고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ATM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급여혜택은 물론 월급봉투

라는 응모권을 통해 최고 200만 마인신한포인트를 제공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급여클럽은 ▲월급봉투와 급여클럽 혜택 중심으로 이용 화면 전면 개편 ▲매월 15일부터 5일간만 응모해 레플(추첨) 방식으로 ‘선물하기 적금’ 30만원을 10명에게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3개월 연속으로 소득을 이체하고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너스봉투’ 등 사용하기 편리한 화면과 새로운 혜택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급여클럽, Cool하게 쏘시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급여클럽’ 최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만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싱글믹 아이스크림 쿠폰 ▲최초 가입 후 7월 중 소득을 이체해 월급봉투를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비스포크 에어컨(1명), 다이슨 퓨어쿨(10명), 설빙 망고빙수 쿠폰(500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급여클럽의 혜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급여고객의 디지털멤버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공동 프로젝트 체결식에 참석한 김상균 교수(오른쪽)와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 신한카드, 학계와 메타버스 공동 프로젝트

김상균 교수와 맞손

신한카드가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가상현실)와 관련 학계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한카드는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 및 ‘메타버스’ 저자 김상균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프로젝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금융권의 활용 방안을 창출하고 메타버스 메인 유저인 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메타버스가 더 이상 미래

의 개념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 이미 들어 있다고 판단, 새로운 흐름이 된 메타버스를 국내에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김상균 교수와 손을 맞잡았다.

김상균 교수는 그의 저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등의 저서를 통해 “현재의 흐름이 과거 인터넷, 스마트폰이 만든 혁명보다 더 거센 정보화 대혁명에 될 것이며 메타버스 형태 변혁은 기업들의 쿼텀 점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반도체 품귀... 캐롯손보, 플러그 공급 재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기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캐롯손보는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캐롯플러그 지급을 정상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캐롯플러그는 매월 탄만큼 결제하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운용되는데 필요한 핵심기기다. GPS를 기반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월별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캐롯과 SK텔레콤의 기술력이 반영된 정보통신기술(IT) 기기다. 작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캐롯플러그 배송이 중단됐다.

캐롯손보는 글로벌 반도체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캐롯플러그 공급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롯손보는 캐롯플러그 공급 재개에

이어 2세대 캐롯플러그 출시를 앞두고 있다. 2세대 캐롯플러그를 통해 정밀한 운전습관 빅데이터를 쌓고, 이를 정제해 알고리즘화할 예정이다. 캐롯의 안전운전 알고리즘은 퍼마일멤버스 프로그램에 반영해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수록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타서비스 중인 퍼마일멤버스 프로그램도 퍼마일자동차보험비가 가입 고객에게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캐롯플러그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어 4개월여 만에 가입자 20만명을 돌파한 만큼 고객의 호응이 뜨겁다”며 “이번 캐롯플러그 지급 정상화를 통해 상반기 리스크 해소는 물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퍼마일자동차보험 신규 고객 유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KB국민카드

### 렌탈 할인 품은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모두렌탈’ 과손잡고 음식물처리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용품 이용료 자동 납부 시 매월 최대 1만 7000원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두렌탈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두렌탈 KB국민카드는 음식물처리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모두렌탈의 렌탈 요금을 자동 납부하고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2000원, 7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7000원이 할인된다.

자동 납부 신청한 렌탈 제품이 2건 이상이면 렌탈 요금을 합산해 전월 이용 실적에 따른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의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카드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영석 기자

## 하나銀, 4350억 규모 ESG 후순위채권 발행

지속가능채권 형태

하나은행이 4350억원 규모의 원화 ESG 후순위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사업에 사용하는 ‘녹색채권’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사회채권’이 결합된 지속가능채

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발행 채권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형태로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에 49bp 가산한 2.58%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여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